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13 정시 최대변수 '대학별 점수'

대학별 반영비율·환산점수 쟁겨라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가 나온다. 성적은 각 영역별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구분해 개인별로 통지된다.

등급은 수시모집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의 통과 여부 기준 점수로 활용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정시모집에서 대학별로 반영방법과 영역 반영 비율로 다양하게 적용, 대학별 점수로 산출해 활용된다.

대학별 반영 방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준점수(국·수·영)와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탐구)를 활용하는 경우(주부 서울 상원대 대학),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변환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고려대·전남대 등), 백분위를 활용하는 경우(광주교대·조선대) 등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남대 변환점수·조선대 백분위

인문계 국·영·수 고루 잘해야 유리

자연계 수학·탐구영역 당락 좌우

◇각 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

정시모집에서는 (표-1)과 같이 대학별로 반영비율을 수능 영역마다 달리해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총점이라도 개인별 점수가 달라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가 된다.

▲서울대=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점은 인문계의 제2외국어 영역이 갑점제로 바뀌고, 탐구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고 탐구 총점은 150점에서 160점으로 늘었다.

▲연세대=인문계열은 언어·수리·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반면에, 자연계열은 수리·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다.

▲고려대=반영비율은 연세대와 같으나 특이한 점은 자체 변환 표준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계 우선선발에서 수리·외국어·탐구영역만 반영하는 점이다.

〈표-1〉대학별 반영비율

Table with columns: 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인문계, 자연계), and 대학별 환산점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광주교대, GIST, 조선대).

〈표-2〉인문계 지원자의 경우

Table comparing A/B students in Humanities across various subjects and total scores.

〈표-3〉2013·2014 학년도 한양대 반영비율 변화

Table showing changes in Hanyang University's admission ratios for 2013 and 2014.

▲한양대=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으므로 이 과목에 장점을 가진 학생들은 유념해서 지원해야 한다.

◇대학별 점수의 중요성
각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단순 환산점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영역마다 반영비율을 달리해 환산점수를 통해 선발한다.

반면 이들 학생이 연세대에 지원할 경우는 다르다. A학생은 324.28(138+128+128+60)×5/7, B학생은 322.86점(123+137+130+62)×5/7으로 언·수·외 총점이 높은 A학생이 B학생보다 +1.42점 높다.

인문계 지원자의 경우의 계산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서울대는 수리영역이 좋은 A학생이 0.5점 높으나, 연세대는 과학탐구영역 점수가 높은 B학생이 무려 5.5점이나 높다.

◇반영비율 작년과 달라진 대학 많다
한양대를 이들 학생(표-3)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했다면? 똑같은 표준점수 총점이지만 지난해 한양대 점수로 환산하면 B학생이 4.4점 높아 유리하지만, 올해에는 반대로 A학생이 3.3점 더 높다.

〈시민기자 한철민·송덕교 교사·한대대학입시전략연구회장〉

전남과학대, '세계 수준 전문대학' 선정

교육부 선정, WCC 현판식

특성화대학 메카 자리매김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으로 선정된 전남과학대학교가 지난 22일 현판식을 했다.

김정훈 교수, 내달 4일 日 추오대 법학부 학생 대상 특강

전남과학대학교 김정훈 교수가 오는 12월 4일 일본 추오대(중앙대) 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김 교수의 이번 일본에서의 특강 및 주제발표는 지난 2009년 사회과학연구소 초청 발표(소세키와 조선), 2010년 사회과학연구소 초청 발표(나쓰메 소세키는 한국에서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에 이어 세 번째이다.

김 교수는 이번 특강 등을 통해 격정기 한 국현대사를 반추하는 시점에서 '일본 혁명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 시대와 5·18민주화운동 시대'를 견주어보고, '고바야시 다키지의 고문과 5·18민주화운동의 탄압양상'도 비교한다.

특히 고바야시 다키지의 노동자 문제와 요즘 화제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도 문학연구자 입장에서 비교해보고 광주의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작가 나쓰메 소세키 작품 속에 그려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안 의사와 아나키스트 고토쿠 슈스이의 인연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정훈 교수, 내달 4일 日 추오대 법학부 학생 대상 특강

김정훈 교수, 내달 4일 日 추오대 법학부 학생 대상 특강

김 교수의 이번 일본에서의 특강 및 주제발표는 지난 2009년 사회과학연구소 초청 발표(소세키와 조선), 2010년 사회과학연구소 초청 발표(나쓰메 소세키는 한국에서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에 이어 세 번째이다.

김 교수는 이번 특강 등을 통해 격정기 한 국현대사를 반추하는 시점에서 '일본 혁명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전남대사대부중 '1박2일 힐링캠프'



전남대 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김현중)는 2013학년도에 총 4차례에 걸쳐(참여 인원 82명)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자기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고, 캠프 후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 집니다."고 말했다.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룸11개(1층 상가)·월수익 420만·준공완료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